

신당 경선 빅3, 광주경선 대비책은

“호남서 굳힌다” 조직력 총동원

정동영, 초반 4연전 상승세·호남출신 이점 이용
손학규 “밀리면 끝장... 민주 출신 의원 지지 밝혀”
이해찬 “참여정부 텃밭... 참평포럼에 큰 기대”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강원·충북 개표결과 발표장인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1위를 차지한 정동영 후보가 손학규·이해찬 후보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경선 초반 4연전 결과, 정동영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1위를 차지했지만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내지 못함에 따라 오는 29일 실시되는 광주·전남 경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경선에서 펼쳐질 표심의 향배에 따라 신당 대선후보 경선의 흐름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초반 4연전 평가=우선 대통합 민주신당 경선 초반 4연전에서 정 후보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당초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반으로 4연전에서 종합 1위를 자신했던 손 후보는 조직력의 약세를 극복하지 못한 데다 투표율까지 저조, 2위에 그치면서 대체론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일각에서는 광주·전남 경선에서 손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관세가 정 후보쪽으로 기울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광주·전남 이후 치러지는 부산·경남에서도 손 후보의 조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후보는 3위에 그쳤지만 친노 후보 단일화 이후, 강원에서 1위를 차지하고 충북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나름대로의 파괴력을 보여줬다.
◇광주·전남 경선 판세=일단 광주·전남지역의 여론 흐름은 정동영 후보와 손학규 후보가 호각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해찬 후보는 다소 뒤처진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조직력면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정 후보가 그동안 특별히 신경을 쓰며 관리한 지역이다. 여기에 정 후보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타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정 후보 캠프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상당하다. 양형일, 이영호, 우윤근 의원 등이 정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양동연, 주승용 의원은 공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초반 경선 4연전에서 2위를 차지, 비상이 걸린 손학규 후보 캠프에서는 오는 29일 실시되는 광주·전남 경선을 사실상 승부처로 보고 총력을 다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또 다시 정 후보에 밀린다면 세세로 급제동이 걸리면서 수도권에서의 역전극도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직력, 현재 광주·전남지역을 가운데 손학규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의원은 김동철 의원이 유일하다.
이해찬 후보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에서의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7대 대선 범여 경선 현장

정동영 “3자 구도는 나에겐 필승구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5일 제주·울산 첫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지금부터 진검승부”라며 강한 자신감을 과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개표 발표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5년전 울산에서 노무현 후보가 1등한 뒤 광주에서 ‘노무현 태풍’이 불었다”며 “제주·울산에서 1등 한 힘을 갖고 향후 경선에서도 1등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 후보는 친노(親盧)진영 후보단일화로 인해 정동영-손학규-이해찬 3자 구도가 형성된 것에 대해 “3자 구도는 정동영에게 필승구도”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학규 “신당 경선 당의장 선거가 아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대선 승리보다 당내 권력 분점에만 관심을 가진 패배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며 “신당 경선은 당의장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과 당원들이 잘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광주를 방문, 지지자들과 함께 무등산에 오른 손 후보는 “광주에 많은 빛을 쬐 범여권의 일부 정치인들이 대선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정권을 포기해서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지역갈등, 이념대립, ‘참여정부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손학규만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16일 오전 광주를 방문, 가랑비가 내리는 무등산을 지지자들과 함께 등반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16일 오전 광주를 방문, 가랑비가 내리는 무등산을 지지자들과 함께 등반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정신 계승자는 민노당”

권영길 대선후보 확정후 광주 5·18묘지 참배

민중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16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권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항쟁 정신은 민주노동당의 정신적 뿌리”라며 “호남 민중들의 민주와 진보를 향한 열망을 실현할 유일한 대선 후보로서 첫 행보를 망월동에서 하고 싶어 후보 당선 직후 방세워 차를 달려 광주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수정치는 ‘절망의 경제’로 여러번의 밥과 지갑을 빼앗아왔고 있다”며 “국민의 밥그릇과 지갑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 후보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노당 대선후보 선출대회 결선투표 개표결과, 유호투표 3만6천231표 중 1만9천109표(52.74%)를 획득해 1만7천122표(47.26%)를 얻은 심상정 후보를 1천987표차로 누르고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오전 대선 후보 확정 후 첫 공식 행보로 광주시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신당 후보캠프 ‘실탄’ 부족 비상

기본 운영자금 마련 못해 사재 털기도

국민적 관심도 낮은 게 주원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각 선거캠프가 ‘돈가물’에 비상이 걸렸다.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돈 쓸 곳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캠프를 꾸려 나갈 기본 운영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지인에게 어렵게 손을 빌리거나 사재를 털어야 할 만큼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있는 실정이다. 물론 경선 후보등록 이후 조금씩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각 캠프의 하소연이다.
여기엔 한나라당에 비해 신당의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또 대선때마다 ‘돈줄’ 역할을 해온 대기업들이 투병정영을 외치며 손을 떼는 분위기도 한 몫하고 있다.
먼저 손학규 후보 캠프는 직원 100여명이 모두 무보수 자원봉사자이고, 활동비는 거

의 자비로 충당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한 달에 자비를 1천만원 가량 쓰고 있다는 전언도 들린다. 심지어는 돈이 없어 선거인단 대상 여론조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하소연까지 흘러나온다.
정동영 후보 캠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예비후보 등록 당시 정 후보는 정계 입문 이후 최초로 집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등록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충당했다. 나라비전연구소 직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근직원 60여명은 이른바 ‘자발적 사포터스’로 모두 사비를 털어가며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해찬 후보는 골프 회원권을 팔아 3억원을 마련하고 신림동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캠프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다. 경선 기탁금 3억원엔 지인에게 어렵게 빌려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상근 근무자 60~70명은 모두 자원봉사자다.
/연합뉴스

유시민,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맡기로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을 전격 포기한 유시민 의원이 이해찬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해찬 후보와 유시민 의원은 16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3자의 단일화는 개인의 영달 차원이 아니라 각 후보가 대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정치를 해온 역사 속에서 이뤄진 하나의 결집”이라고 평가했다.
유 후보는 “어제(15일) 경선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 뜻에 맞춰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스스로 판단한 것이지만, 곧 퇴임할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중앙권력 지방에 분산해야”

○민주당 이인제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국토의 진정한 균형발전은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시켜 분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권의 지방분권은 (중앙에 있는)각종 기관을 지방에 이전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기관의 분산과 차원이 다른 권력의 분산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세금과 금융, 토지이용에 관한 권한이 지방에 분산될 때 자연스럽게 권력분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후식기자 who@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과로 전화 또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우측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립니다.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실금융·매인·부동산·매매·일대·전세·분양
☎(062)220-0524 · 직통: (062)227-9600 · FAX: 227-9500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협 :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업무내용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법인 M&A(분할 합병)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
(주)우성건설정보
본사
TEL : (02)587-7400
FAX : (02)597-8855
호남지사
TEL : (062) 226-6300
FAX : (062) 943-2244

고시원
매매

우리나라에 기적이 일어났다!!
발견 블로초
동방 블로초
블로초는 풀이 아니고 물이었음
울 추석선물은
“동방블로초”로!
나이 많은 어르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최고의 선물!!
=시판기념 특별 할인판매=
500ml들이 24병 (1박스) 38,000원
900ml들이 24병 (1박스) 58,000원
배송료 무료
◎입금계좌 (농)641076-51-025857(김현영)◎
※입금 후 전화주시기 바람
천지영천수식품 070-7012-0246
www.cjyc.co.kr (017) 291-3115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7년 9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7년 10월 12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 9월 13일
대략부자건설링 주식회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현리 653
대표청산인 대표이사 이교숙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7년 9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7년 10월 12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 9월 13일
주식회사 황금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55-2번지
대표청산인 대표이사 박상선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7년 9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7년 10월 12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 9월 13일
행복만들기건설링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24-6번지
대표청산인 대표이사 유광철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7년 9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7년 10월 12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 9월 13일
해림건설링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서동 146-140번
대표청산인 대표이사 윤성모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7년 9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7년 10월 12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 9월 13일
주식회사 복된건설링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44번지 4층(역삼빌딩)
대표청산인 대표이사 전오수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7년 9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7년 10월 12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 9월 13일
주식회사 해피머니
광주광역시 동구 정동 103-7
대표청산인 대표이사 김중환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7년 9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7년 10월 12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 9월 13일
지인건설링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유림동 산889번지
대표청산인 대표이사 김창호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7년 9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7년 10월 12일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7년 9월 13일
미래비전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 55-2번지
대표청산인 대표이사 구자수